

포장기술인 해외연수 지원
포장기술 국제화 위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원장 유호민)은 지금까지 디자인 분야에 만 혜택을 주어왔던 해외연수 및 국제 전문가 지도지원 계획을 포장기술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장래성 있는 포장기술인을 선발하여 일본 포장관리사 강좌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포장기술의 국제화를 통한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포장 기술인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일본의 포장관리사 교육 과정으로 연수 지원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연수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기업체나 KIDP가 인정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실무 포장기술인으로 포장관리사에 등록된 자, 포장관련 교육이수자,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등이다.

22일만에 걸쳐 실시될 이번 연수는 연수후 KIDP가 시행하는 포장개발 지원사업의 진단위원 및 지도위원 등, KIDP가 지정한 근무를 2개월간 이행해야하는 조건이 따르고 있다. 그동안 KIDP가 포장기술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탓에 이번 연수교육 추진이 업계에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포장전문가 초청 기술지도
국내 10개 업체 대상

KIDP는 산업디자인·포장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전문가에 의한 국내업체 지도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일본 포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기업에 대해 포장기술에 대한 지도 및 워크샵을 실시함으로써 포장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게 될 이번 사업의 대상업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포장인 2명이상(포장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본 전문가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에 의한 환경보호, 물류합리화 또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부문을 지원하게 되며 지도 지원이 완료된 후 실용화를 위해 사후관리 실시와 상용화에 성공하는 경우 개발원 부담으로 홍보지원도 받게 된다.

또한 피지도 업체가 전문가 또는 개발원이 인정하는 지도위원과 개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발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디자인의 날 5월 2일로 변경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 가져

정부와 KIDP는 산업디자인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경제발전 및 수출 전략적 차원에서 이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3년을 우리나라 디자인 발전의 원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범국민적인 디자인 주간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94년도에도 산업디자인의 인식제고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지속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디자인의 날'을 5월 2일로 변경 했다.

이에 지난 4월 29일 하얏트호텔 쟈에서 디자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초청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들 10명이 초청, 유공자 표창을 갖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산업디자인 포장기술 지도

제품 경쟁력 강화 위해

개발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 능력과 포장기술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디자인 포장기술의 지도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산업디자인 포장기술의 발전과 인식이 미흡한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진단지원에서 지도지원, 개발지원, 홍보지원에 이르기까지 4단계의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93년의 경우 지도개발 수요업체가 148개 업체였으며, 이중 실용화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41개로 실용화율이 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에 와서는 1,2월 2달동안 이미 지원을 희망한 업체가 800개를 넘어섰다. 더구나 지도개발 희망업체와의 상담결과 3월5일 현재 지도지원이 완료된 167개 사중 디자인과 포장을 개발 및 개발 지원하는 비율이 80%에 달해 93년 대비 3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이같이 지도개발 희망업체의 수와 실용화율이 높아진 것은 첫째, 선진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UR의 타결로 인해 위기에 빠진 우리기업이 적은 투자와 짧은 시간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둘째, 기존의 OEM방식이나 선진제품을 모방한 제품으로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며, 셋째, KIDP에서 중소기업 지도개발에 사업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업체를 발굴,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KIDP에서는 희망업체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공업디자인 전문회사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지도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산업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전문회사 육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제산업디자인교류전 개최

ICSID 후원으로

개발원은 산업디자인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내 산업디자인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제고를 도모하고자 오는 10월5일부터 10월13일까지 94 국제산업디자인교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ICSID의 후원으로 열리게 될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및 북미 각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호주가 참가하게 되며 국내외 디자인 전문부서를 보유한 업체, 국내의 디자인 전문회사 등이 참가하게 된다. 전시품목은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 분야이며, 전시회 이외에 워크샵 등 각종 부대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8월31일까지며 참가문의는 진흥부 전시과로 하면 된다. (전화:708-2070/3)

공인디자인전문회사협회 출범

사단법인 승인 받아

상공자원부는 4월13일 공인디자인전문회사협회를 사단법인체로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한국산업디자인협회, 텍스타일단체 등 산업디자인 관련 4개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되었다.

이와같이 4개의 전문분야별 협회, 지난 3월 창립된 남부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부산업디자인협의체 및 서부(광주, 전주지역), 중부(대구 지역) 등 지역별 협의체가 구성되면 개발원은 이들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산업디자인 선진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본격적인 각종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